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함께 뛴다”

간협, 강원도와 업무협약 맺고 적극 협력키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1월 9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강원도에서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비롯해 잠시택 보건복지부 여성국장, 남궁홍 식품의약과장, 이자영 식품의약과 의약관리담당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김옥수 회장, 김남초 제2부회장, 곽월희 이사, 이명ه 이사, 손혜숙 당연직이사(강원도간호사회장)가 참석했다.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뿌리 깊은 전문직단체인 대한간호협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주시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남은 기간 잘 준비해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세계인의 축제이며 한국을 알리는 국가 행사인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강원도와 맺게 돼 기쁘게 생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오른쪽)과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각한다”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간호사신문과 온라인 KNA뉴스레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 참여운동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날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인형과 배지를 대한간호협회에 선물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동계올림픽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 슬로건 아래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강릉-정선에서 열린다. 마스코트는 ‘수호랑’으로 백호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수호’는 선수와 참가자 그리고 관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며, ‘랑’은 호랑이와 정선아리랑을 상징한다.

동계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마스코트는 ‘반다비’로 반달기수곰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반다’는 반달을, ‘비’는 대회를 기념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난 13년간 재난·외상

제3기 전문병원 109개 지정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9개 병원을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6~7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27개 병원의 신청을 받았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의료 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9개 병원을 선정했다.

109개 전문병원을 전문분야별로 보면 △관절 19개 △뇌혈관 3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4개 △심장 1개 △알코올 9개 △유방

1개 △척추 16개 △화상 5개 △주산기 1개 △한방척추 8개 △산부인과 13개 △신경과 1개 △안과 9개 △외과 2개 △아이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한방부인과 1개이다. 전문분야는 총 19개이며, 이번에 한방증증분야는 지정기관이 없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2기 전문병원에 비해 2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는 의료 질 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석됐다. 2기 대비 관절, 알코올, 한방척추 분야 등은 증가했고, 뇌혈관, 주산기, 산부인과 분야 등은 감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은 올해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부담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개선 및 의료 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기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부터는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은지 간호사는 “누구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며 “간호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앞으로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환자의 희생을 드렸다”고 밝혔다.

12월 18일 입원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후 퇴원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서는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향원(HLA)이 일치해야 하는데, 가족

이 아닌 경우 그 확률이 2만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은지 간호사는 “누구보다 생

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며 “간호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앞으로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환자의 희생을 드렸다”고 밝혔다.

주체진 기자 hjo@

권명옥 장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취임

전문성과 사명감 갖춘 정예 간호장교 양성 주력

여성장군으로 권명옥 대령(육군본부 의료관리과장)이 승진했다.

국방부가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장성급 인사에서 권명옥 대령은 장군(준장)으로 승진했으며, 제26대 국군간호사관학교장으로 1월 8일 취임했다. 장군의 상장인 삼정도를 1월 11일 받는다.

권명옥 장군은 국군간호사관학교 27기로 1987년 소위로 입관했다. 국군춘천병원 간호부장, 국군의무사령부 QI계획장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장, 육군본부 의료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취임식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윤종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권명옥 장군은 취임사를 통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리 학교는 위국현신의 사명감과 희생·봉사의 간호정신으로 위기 시마다 국민을 지켜왔으며, 전 세계 재난 및 분쟁현장에서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병과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군 양승숙 장군을 배출했다. 이재순 장군(2004), 윤종필 장군(2006), 박순화 장군(2008), 신혜경 장군(2010), 박명화 장군(2012), 최경혜 장군(2014), 윤원숙 장군(2015)에 이어 이번에 아홉 번째 여성장군을 배출했다.



영역에서 폭넓은 경험과 교류를 바탕으로 최고의 재난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책임국방과 강군육성에 기여하는 정에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임무”라며 “통일을 준비하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국가 최고의 재난교육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병과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장군 양승숙 장군을 배출했다. 이재순 장군(2004), 윤종필 장군(2006), 박순화 장군(2008), 신혜경 장군(2010), 박명화 장군(2012), 최경혜 장군(2014), 윤원숙 장군(2015)에 이어 이번에 아홉 번째 여성장군을 배출했다.

주체진 기자 hjo@

한국인 고유 특성 반영된 ‘혈당 참조표준’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해 한국인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성별·연령별 혈당의 분포와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 공복 혈당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50~60대에서,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복혈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에 걸쳐 남성의 공복혈당 평균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40~50대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관련 소프트웨어, 의료/의약품 등 각종 산업에 활용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서 “지역·성·연령별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뇨의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 등 혈당 상승의 원인을 찾는 연구자료로써의 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건보공단 자료공유서비스(<http://nhiss.nhis.or.kr/>)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주체진 기자 hjo@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과정 탑재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탑재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이수 인정시간
만성질환 식이 I	4시간
만성질환 식이 II	4시간
면역체계의 이해와 간호 I	4시간
면역체계의 이해와 간호 II	4시간
신경계 환자간호 I	4시간
신경계 환자간호 II	4시간
임활자간호의 최신지견 I	4시간
임활자간호의 최신지견 II	4시간
간호실무중심의 자살 위기관리	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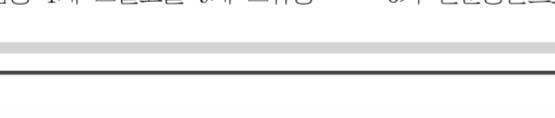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http://edu.kna.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다06368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koreanurse.or.kr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병 간호 사회 (02) 2261-1711
	보건 간호 사회 (02) 525-7318
	보건 진료소장 회 (02) 2266-7677
	마취 간호 사회 (02) 527-3360
	간호사 회 (010-3103-0748)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산 암 간호 사회 (02) 716-9030
	가정 간호 사회 (02) 2267-5688
	정신 간호 사회 (02) 425-1271
	노인 간호 사회 (031) 750-59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윤리실천효과를 준수합니다.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